

국회서 ‘약식’ 취임선서…적색·청색 넥타이로 통합 강조

국정 시급성 고려 간소화
“헌법 준수하고 국가 보위”
청소노동자 등에 감사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했다.

이날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했다.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악수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까지 압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적색·청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여했다.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직전 “제가(로텐더홀로) 들어오면서 야당 대표들을 못 봐서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를 안 하시길 바란다”고 웃음을 지으며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지난 2023년 이 대통령의 탄식 기간 내내 여러 도움을 줬던 당 대표실 담당 미화원 최성자 님도 만났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 기자

이 대통령 “100% 취할 수 없어, 양보·타협”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오찬
“전쟁 아닌 ‘대화 정치’ 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사랑채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

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

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따로 당사도 찾아뵙기도 했지만, 경호 문제 등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라며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 드린다”고 부연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이 대통령 첫 행정명령…비상경제점검 TF 구성 지시

법무장관의 국무위원 사의 반려
대통령실 일반직 공무원 복귀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테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고, 오늘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재난·치안·재해 등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의를 반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도 즉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 업무 불능 상태”라며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커녕 인터넷망과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대선 현수막 철거 4일 광주 서구 화정로에서 광주 서구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1728만표 대통령… ‘역대 최다 득표’ 기록

최종 득표율 49.42%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였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으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639만4,815표, 48.56%)을 뛰어넘었다.

다만 득표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최다 득표율 기록(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51.55%)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2위인 김 후보를 8.27%p(289만1,874표) 차로 앞섰다.

역대 최대 격차 당선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2위인 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22.53%p 격차로 승리한 것이었다.

김용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김문수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 미만’ 이준석 못받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연합뉴스

인생을 울리는

후

라면

SHIN RAMYUN

“라면은 역시 신라면이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인생을 울리는 농심 신라면
누구라도 좋아하는 맛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환영받는 맛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신라면의 맛, 오늘 맛있는 신라면 한 그릇 드셔 보세요. 맛을 보면 역시 신라면입니다.